

몸무게 약 150kg 감량해 삶을 바꾼 여성



▲ 체중 감량 전과 후의 이블리 모습. 사진=유튜브(All In One world Info) 캡처

몸무게를 무려 150여kg이나 감량한 여성의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텍사스에 사는 36세 여성 이블리 모랄레스 라그 레인지는 어린 시절부터 과체중에 시달리다 2007년 아이를 출산한 후에 체중이 더욱 급격하게 늘어 무려 227kg에 달했다. 체중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었다. 이블리는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당뇨 등의 증상도 심해졌고 일상적인 생활도 거의 불가능했다.

4년 전인 2017년, 이블리는 두통과 함께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배변 활동이 통제되지 않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이블리의 뇌가 두개골에 비해 비례하게 커지면서 뇌부종이 생겼으며, 뇌부종으로 인한 압박을 줄여주기 위한 감압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체중이었다. 수술 후 회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술을 하려면 최소 130여kg을 감량해야만 했다. 이블리는 체중 감량을 위해 고도비만 치료에 이용되는 위소매절제술을 받았으며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통해 몸무게를 줄여나갔다. 그 결과 무사히 뇌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30개월이 지난 현재의 몸무게는 80kg으로 과거에 비해 약 148kg이나 줄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블리는 “살을 뺀 뒤에는 쉽게 지치지 않아서 딸과 함께 소풍을 나가거나 개와 산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과거에는 나가자마자 어딘가에 앉아 쉬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집을 나서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 일어나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머리가 등 뒤로 180도 꺾인 남성

희소병 탓에 머리가 등 뒤로 180도 꺾인 채 살고 있는 브라질인 남성의 사연이 세상에 공개돼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州) 몬치산투에 사는 클라우지우 비에이라 지올리베이라(44)는 선천성 다발관절구축증이라는 희소 질환을 앓고 있다. 지올리베이라는 이로 인한 근육 위축 탓에 양팔과 양다리가 가슴 쪽으로 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등 뒤쪽으로 완전히 꺾인 채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애도 삶에 관한 그의 열정을 막지 못한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강단에 서서 사람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강연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자서전과 강연 DVD를 출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비에이라 지올리베이라는 태어났을 때 24시간도 채 살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삶에 관한 의지가 큰 덕분인지 살아남았고, 7세 때부터는 특수 설계된 지지대의 도움을 얻어 혼자서 무릎을 꿇은 채 걷고 집에서 어머니에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



▲ 사진=유튜브(The 5 biggest - Montreal TV) 캡처

현재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 같은 바쁜 삶을 잠시 보류했지만, 조만간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클라우지우는 “일이 매우 그립다. 4월 28일 페르남부쿠주 베제하에서 강연이 잡혀 있다.”면서 “만일 팬데믹이 완화된다면 강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름 투성이 동전 더미’의 정체



▲ 플레턴 집 앞에 놓여 있던 동전 더미. 사진=유튜브(ABC7) 캡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하던 엔드레이어스 플레턴은 지난해 11월 개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

플레턴은 규정대로 퇴사 2주 전에 업주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업주는 그에게 마지막 급여를 두 달 뒤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후 업주는 플레턴이 업장에 피해를 줬다며 마지막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플레턴이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하자 업주는 다시 태도를 바꾸었고 퇴직한 지 4개월이 지난 지난달,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마지막 밀린 급여를 지급했다.

지난달 12일 밤 위장염으로 고생하던 플레턴은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다 주차장 앞에 놓인 검은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동전 더미였다. 그 위에는 급여명세서와 함께 욕설이 적힌 쪽지도 담겨 있었다.

동전 더미는 플레턴의 마지막 급여인 915달러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 동전은 약 9만 개로 거의 대부분 1센트짜리였고 무게는 약 228kg에 달했다. 게다가 이들 동전에는 기름 같은 것이 뿌려져 있었다.

이날 플레턴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의 집에 들렀던 여자친구 옥슬리는 “업주가 최악의 복수를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